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타스님 편역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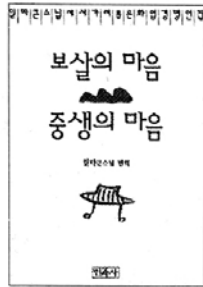
정운스님 지음

경주 남산

신영훈 지음

새로운 책

화엄경 핵심내용 발췌한 금언집



“세상의 낙(樂)이란 결국 고통아닌 것이 없다. 탐욕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것. 모든 고통과 근심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일타스님(은혜사조실)이 편역한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은 <화엄경>의 핵심을 가려 뽑은 일종의 ‘화엄경 금언집’이다.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다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아 불자들도 한번쯤은 <화엄경>을 접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엮었다고 일타스님은 말한다.

모두 285개의 말씀으로 구성된 이으며, 중간중간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변상도를 넣어 <화엄경>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간결히 읽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민족사, 5천5백원>

화제의 책

집착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사는 삶



언제든지 떨치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머물지 집착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사는 삶.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일에 몰들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결코 가난하지 않으리라. 가을은 바라보기만 해도 넉넉하듯이 말이다.

충남 보령 세원사 정운스님의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수행담을 곁들이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에세이집. 인연의 장, 마음의 장, 정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장에 맞는 작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희망은 찾는 사람에게만 있음을 깨우쳐 준다. <불광출판부, 7천원>

화제의 책

불국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행문



산 같은 바위가 집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산의 바위에도 사람들은 마음을 담았다. 경주 남산에는 그런 자취들이 역력하다. 불국사에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구현하였듯이 신라인들이 영산으로 조형하려 했던 곳 경주 남산.

문화재 전문위원 신영훈씨가 펴낸 <경주 남산>은 앉아서도 그곳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매 페이지 2컷 이상의 컬러화보를 실어 이해를 도왔으며, 유적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다. 직접 답사한 내용을 옮긴 책이라 현장감이 살아있다. “남산은 영원한 곳이다” 저자는 이렇게 소감을 적는다. <조선일보사, 4천원>



▲벽산스님 따라하기=어려운 주역을 한다. 상황에 맞게 풀어 쓴 책.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궁극점을 풀어볼 수 있도록 체계 구성돼 있다. 자신의 운세를 극복한 전회위의 사례 5가지와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31가지의 실천사례도 제시했다. 벽산스님(합천 칠성암 주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시원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상하 두 권. <봉성기획, 각 권 1만2천원>



▲폐허의 붓=참선과 도야에 관한 저자 무량암의 자기체험과 관점을 드러낸 책. 깨달음과 우주적 진리를 명상 수행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가운데 선종에서는 쓰지 않는 사인선(死人禪)과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 이처럼 이 책은 불교의 보편적 원리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 태어난 무량암에 있는 독특한 우주관으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비판해 왔다. <모래, 1만2천원>



▲조선왕조 삼국사대=조선시대 역사를 정치사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시각까지 결집한 교양서다. 왕과 궁중생활, 양반과 서민생활, 정치·외교 이야기, 사회·문화 이야기 등의 주제별 접근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엮여 있다. 경향신문 최정훈 기자 지음 <이토, 1만원>



▲우리는 가족이다=엄마 아빠, 그리고 이 세 식구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에세이. 가족 안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에 대해, 또 학교에서 겪었던 나름대로의 사건들에 대해 아이가 한 가지 표현을 엄마가 귀담아 들었다. 글과 그림을 만들고, 아빠는 아이의 생각과 엄마의 손씨들을 모으는 책으로 묶었다. 아이 박재민 엄바준(남서울대 교수)의 따뜻한 가사랑 이야기. <육공일 비상, 1만2천5백원>

초발심 일깨우는 죽비소리

여러날 동안 깨달음, 해탈, 열반 따위의 절집 말을 곱곰 따져 봤지만 그걸 찾으러 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막연하기도 한 것 같고... 딱부러진 말 한마디 찾아내지 못하고 절 마당에 들어섰다. “왜 종이 떨리고 하는가?” 어눌하게 우물거릴 수 밖에 없었다. “시인 떨리고요”

재연스님 산문집 '입산'



살았던 때를 ‘행자기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산>은 스승과 선배 스님들, 도반과 절집 사람들, 선방과 저자 거리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서술 푸른 수행자의 내면을 사실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게 담았다. 산문집은 시간순으로 흐른다. 반승반속의 행자가 1년의 수행을 거치며 스님이 되기 과정이 때로는 눈물짓게, 때로는 웃음을 머금게, 때로는 숙연하게 한다.

반승반속의 행자 절집생활 거치며 스님이 되는 과정 때로는 눈물짓게 때로는 숙연하게

행간 속에서 ‘희릿’을 좇는 사람들에게 내리치는 죽비소리도 들린다. 재연스님은 “수행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털어내고 비워내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출가 후 전국 각지 선방을 돌며 공부하고 태국을 거쳐 인도 뿌나대학에서 유행생활을 한 것도 모두 비우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귀국후 격조 앞바다 위도의 작은 암자 내원암에서 수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초발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수행, 그것은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는 스님의 몸짓이 <입산> 속에서 느껴진다. 값 8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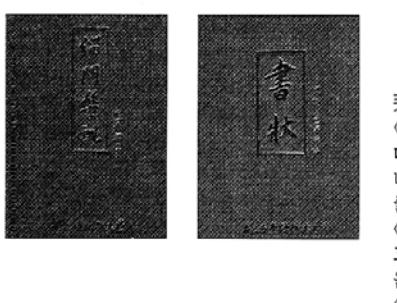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故 고유섭씨의 저작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75년만에 일반 공개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수학한 학자이자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학자로 평가받는 우현 고유섭 선생(1905~1944). 그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 건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집필했던 <한국건축미술사 초고>가 75년만에 일반에게 선보이게 됐다.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대원사)는 조선건축의 지위와 특징으로부터 시작해 삼국·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 등 각 시대별 건축의 특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내용은 주로 각 시대별 건축의 특징과 외관 및내관, 재료 구조를 살피는데 주력하면서 우리 건축의 한 축을 형성해 온 불교건축, 즉 사찰과 탑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범어사 동도사 해인사 화엄사 금강사 송광사 등의 대표적인 사찰건축물은 비교적 상세히 언급돼 있다. 당시 주로 쓰던 일본 건축용어나 고어(古語), 당시의 고유명사 등을 현대어로 고치는 작업은 김동현 교수(연세대 건축공학과)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어체 및 한문체 문투와 용어가 적지 않아 읽기에 쉽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이 책은 지난 64년 같은 제목으로 200여부가 발간된 바 있으나, 일부 고고미술 동인들이 나누어 가졌을 뿐 일반에게는 배포되지 않았었다. 값 1만2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식어른 집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10 best-selling books.



거부스님 '치문경훈' '서장' 번역 출간

수덕사 승가대학 강주 거부(巨婁)스님이 공부하는 학인들을 위해 <치문경훈>과 <서장>(수덕사 승가대학)을 번역해 펴냈다. 재가자나 학계에서 번역과 주석을 달아 출간한 적은 있었으나, 스님으로서 교과목으로 선에 관한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거부스님 역본은 대부분 직역으로 원문을 번역해

놓았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신수대장경>에 나타난 오자(誤字)는 각주를 달아 설명해 놓았다. 공부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재가자들에게도 <치문경훈>과 <서장>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거부스님은 “스님의 시각에서 번역하고 각주한 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학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두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값 <치문경훈> 1만8천원, <서장> 1만5천원.

Large advertisement for '신창원, 잡힐까? 안잡힐까?' featuring a portrait of Kang Do-sam and promotional text for '벽산스님 따라하기'.